

목포시, 국내 첫 전기추진 차도선 진수

420톤, 길이 60m 규모...차량 20대 탑재 승객 120여명 탑승 남향, 세계적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계기 마련



국내 최초의 전기 추진 차도선(K-전기추진선박)이 목포에서 첫 선을 보였다.

목포시는 4일 삼진산단에 위치한 ㈜유일공장에서 전라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과 함께 'K-전기추진선박'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김원익 국회의원, 박창수 시의회의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유일 유인숙 대표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선체 건조를 축하하고 목포가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자는 데 힘을 모았다.

'K-전기추진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조됐으며 사업 주관기관인

KRISO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유일, KTE, 라온텍, 듀라소닉, KAIST 등 13개 연구소, 민간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했다.

420톤, 길이 60m 규모인 'K-전기추진선박'은 차량 20대를 탑재하고 승객 12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도선인데 차도선은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과 함께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일컫는다.

'K-전기추진선박'은 우리나라 연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이 적용돼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선박을 직접 충전하기 위한 고전압 시설을 항구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K-전기추진선박'은 후행공정과 최

적화를 거쳐 항로에 직접 투입돼 운항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실증 과정을 통해 기술보급과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육성 본격화의 신호탄인 'K-전기추진선박'의 진수는 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운항 중인 차도선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탄소배출 뿐 아니라 매연, 소음, 악취 등을 발생한다. 하지만 전기추진 차도선은 전기만을 100%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진동이 없어 환경보호 효과가 높고, 승선감도 좋다.

경제 효과도 대단히 크다. 국가적으로는 전세계 친환경선박시장은 27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K-전기추진선박'이 진수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세계 선박시장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목포경제에서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정부가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 남향을 국가적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에 따라 남향은 연구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산업 관련 기능이 집적됨에 세계적인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또 연간 4만9천명의 고용창출, 연간 최대 2조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의 첫 결실인 K-전기추진선박이 진수하게 돼 대단히 고무적이다"면서 "남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관련 산업이 목포를 넘어 전남 서남권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축협, 2021축산육성대상 '최우수상' 쾌거

함평축산농협(조합장 김영주)이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2021년 축산육성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이날 시상식은 매년 전국 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축협을 평가하여 표창을 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은 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축협을 상대로 평가한 가운데 최우수조합으로 함평축협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식에 참석한 김영주 조합장은 "앞으로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어려운 축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전이응이 더해져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도 우수한 조합으로 발전시켜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평축협은 지난 2019년에 지도사업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 한 적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함평축협에는 표창금 10억원과 4급 특진 1명의 특혜가 주어진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생활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교육기관 선정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생활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교육기관으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 생활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 자격 중 하나로 포럼,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

종 회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합의결과를 도출하는 중재자 역할 회의기법이다.

백금표 센터 사무국장은 "센터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선정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한 현장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만든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후 지역개발과장은 "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개발 사업의 활력 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합계출산율 '전국 5위' 경중

신안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5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신안군의 합계출산율이 1.50명(20년 1.34명)으로 전년 대비 경중 뛰어 올랐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귀농·어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과 함께 출산

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인구유입·증가와 저출산 대응이 융합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시행으로 해당 읍면의 전입 인구가 전년 대비 129명 증가 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별 240만원에서 최대 97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주기간 제한 폐지로 신안군 전입 후 출산가정의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출산 장려지원 정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이명주기자

영광군, 행안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선정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기초 지자체 89개를 대상으로 공모한 프로젝트로 영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

의 소생활권 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2024년까지 연간 1억 원씩 3년간 지원받으며,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다부처 투자협약 방식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